

# 티모르 딜리팀 3월 이야기

Bondia, Timor-Leste!





# 목차

1. 3월 한 달의 일정

2. 개인 소개

3. Atti in Tera-Santa(우리들의 센터에서 생활)

- 떼뚝어 수업
- Klase 보조 교사 및 수업 진행(그림그리기)
- Tera-Santa의 명소
- Fhoe 생일잔치

4. Atti in Uma(우리들의 집에서 생활)

5. Atti in Dili (우리들의 센터와 집 밖에서의 생활)

6. 3월의 사진전

7. 3월의 개인 Ess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인천공항 출국	6 Dili 도착	7
8	9 센터 첫 방문	10 떼뚱어 교육 시작	11	12	13	14 Peace Coffee 방문
15	16 Abuk 떼뚱어 고수 Late 방문	17	18	19 한국 대사관 방문	20	21 Peace Coffee 방문
22 리차드씨 송별회	23 Tera-santa 애변 그경	24	25 아빠씨 관사님 아기 출산	26	27 떼뚱어 교육 끝	28 Peace Coffee 방문 Castaway!
29 Fhoe 돌잔치	30 센터 라운아띠 게시판 꾸미기	31 Atti Klase 계획 회의	1	2	3	4





# Coffee

이름 : 김환웅 (3억의 소동자)

특징 : 때때로 구사 능력이 좋음

바지 노출이 심함 ㅋㅋㅋ

(Lisa, Beti의 불만이 많음)

현지 이름 : Ivo (Ivonía Dos Santos)

나이 : 26살, 09학번

자주 하는 말 : 조크(joke)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조크라고 함)

다슬아, 방에 들어 가도 돼? (여자 방에 너무 수시로 들어오려고 함)

다슬아, 노트북 좀 (10초 뒤) 이어폰 좀

에어컨 켜자

스미마셴~

자주 듣는 말 : 아, 오빠~ (다슬)

야, 김환웅 반성해라 (보연)

김이보 (마나 클라라)

테라산타에서 자주 듣는 말 :

Ivo, Bonitu (이보, 잘 생겨다)

Ivo hanesan Komes (이보랑 고메즈랑 똑같다)

(어린인들이 라운아띠 8기 고메즈랑 닮아다고 부름)

Ivo la bele tetum (Ivo는 때때로 어를 할 수 없다.)

Jesi 얼마로부터 때때로 영등생으로 찍힘



이름 : 이다슬(3월의 사진)

특징 : 부지런해 주말 아침 8시에 일어난다!(할머니 인 줄)

이 달의 요리를 책임지고 있음

여수에서 보은 밤마다하던 Beti가 마인든 마음 요리를 선보임

또한 아띠 중 그림을 잘 그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음

(Lisa를 Beti라 부르는 스펀 소식도 있음)

현직 이름 : Beti(Beti Stella Mendes)

나이 : 25살, 10학년

자주 하는 말 : 기도환, didi lolon(벽에 붙어있어)

자주 듣는 말 : 오늘 뭐 먹어?

치킨 집 차리며 되게다.

(3월의 메인 요리사였음)

슬아~(마나 클라라)

테라사타에서 자주 하는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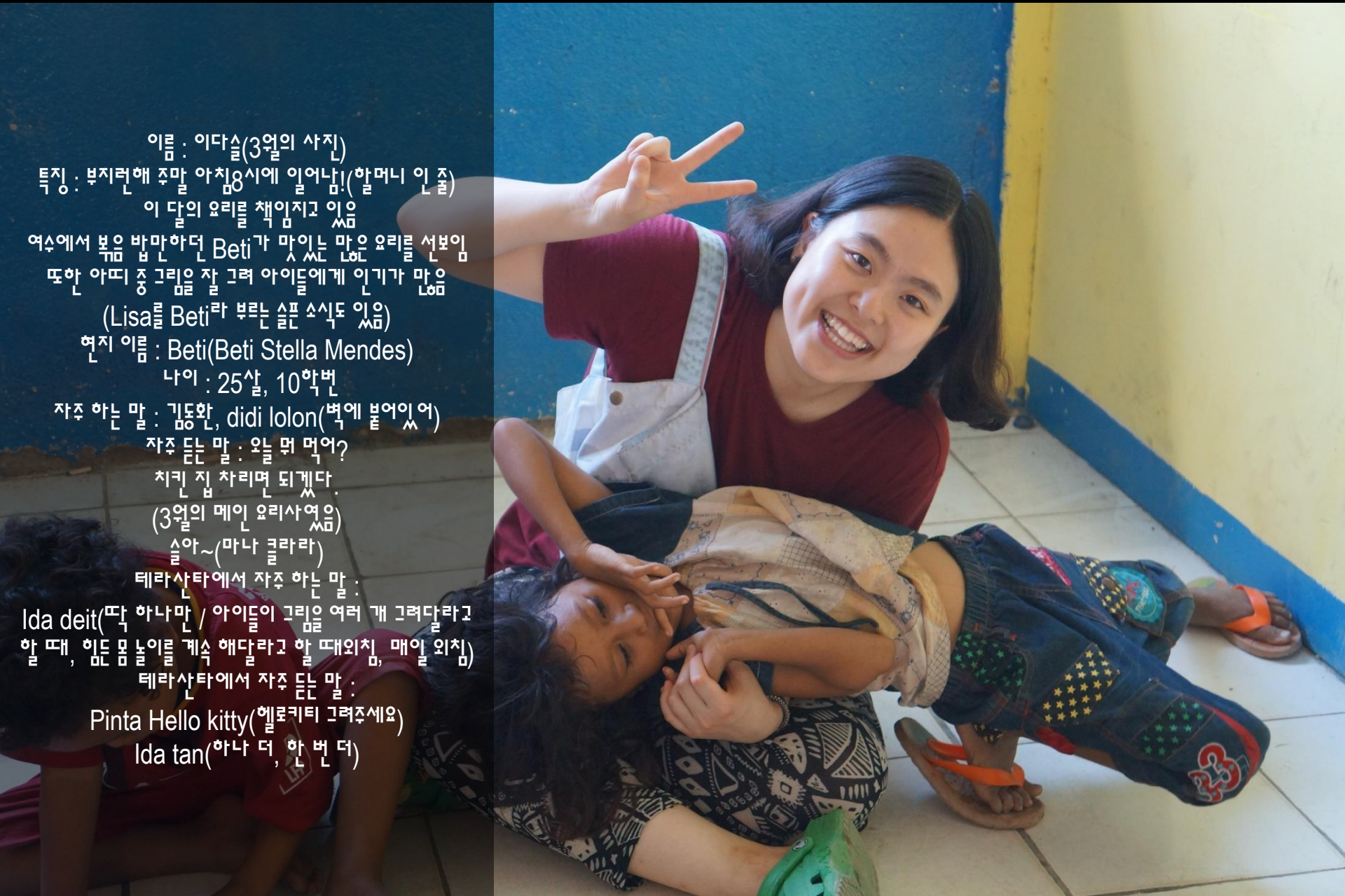
Ida deit(딱 하나만 / 아이들이 그림을 여러 개 그려달라고

할 때, 힘든 몸놀이를 계속 해달라고 할 때외침, 매일 외침)

테라사타에서 자주 듣는 말 :

Pinta Hello kitty(헬로키티 그려주세요)

Ida tan(하나 더, 한 번 더)







이름 : 김동환(3월의 서기)

특징 : 아찌 중 유일한 활동적인 활동을 좋아함

(특히 YMCA 축구단과 축구 하러 자주감)

축구 할 때 매번 장을 보러 가서 님니다고 많이 혼남 ㅋㅋ

테라산타에 미다라는 아이를 정말 좋아함 ><

현지 이름 : Dino(Recardino baptista)

나이 : 24살, 11학년

자주 하는 말 : 그러고

너무 하네

나 그렇게까지 바보인 아니야

축구 가다 올게

늦어서 미안(축구하러 가면 거의 늦게 옵)

자주 듣는 말 : 김동환, didi lolon(벽에 붙어있어)

안 돼

테라산타에서 자주 듣는 말 : Maun Ivo

테라산타에서 자주 하는 말 : La bele(안 돼 / 아이들이 격한 몸놀음이

를 해달라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는 듯하나 미다, 아빠씨는 해줌)

미다 보고 싶다!



이름 : 김보연 (3월의 회계)

특징 : 발가락만 타는 희귀한 능력

미치 드하 뽀뽀 관리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음  
기분 좋으 때 (칼 퇴근 할 때) 두 손으 흔들며 춤을 춤  
(춤추고 싶은 내재된 욕망 과다한 것으로 판단)

여지 이름 : Lisa (Lisa mona da silva)

나이 : 22살, 13학년 (막내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

자주 하는 말 : 돈 없어, 가출해야 될 지도 몰라 (3월의 회계역으)

누가 째어어 사지 썬다 (자기가 째고 자기가 감탄함)

야, 김환은, 기도한 (남자 방에 대고 소리침, 소리치지 않으며 이보, 디누가 거의 못 들으)

안경 쓰며 자조감이 떨어져

자주 듣는 말 : 사진 찍어도 돼? (안경 쓴 나, 꼭 물어보고 사진 찍어야 함)

안경 쓴 게 더 예뻐, 리사 보여 줘 (Ivo한테 들음)

Lisa triste tamba ain fuan metan

(리사는 발가락이 타서 슬프다)

(유독 발가락만 까맣게 타기 시작)

센터에서 자주 하는 말 : Lapis (연필)! (뽀뽀 관리를 칼 같이 잘 함)

Hapus usa hamutuk (지우개는 같이 써야 해)

센터에서 자주 듣는 말 : Bin beti





# Atti 떼뚝어를 배우다!!



아띠들은 3월 한 달 마나 Mana Mery에게 현지어인 떼뚝어 수업을 받았다. 수업은 화, 수, 금 오전에 있었다. 매우 쉬울 거라던 주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떼뚝어는 아직도 많이 어렵다. “Tenki husu barak!” (지문을 많이 해야 해!)를 외치는 Mana Mery 앞에서 아띠들은 몇 지문해야 할까 매번 지문을 흘려다. 수업 시간에 “Ivo Bokur(이보는 뚝뚝하다)”, “Ate tinan rihun oin(천년 뒤에 보자)”같은 장난스러운 예문으로 공부라시고 놀기도 했던 떼뚝어 수업. 우리에게 떼뚝어 수업을 늘 짜게만 느껴졌다.

우리들의 떼뚝어 선생님! Mana Mery!  
 사진 찍을 때 항상 같은 각도 표정을 취하는 Mana Mery!  
 Mestra(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Mana Mery!  
 수업 중 고실에서 아이들과 놀던 Ivo와 Dino에게도 너그럽던 착한 Mana Mery!





# 아띠들의 일일 선생님, Abuk!



Mana Mery가 학교에 가는 날 오전에 센터에 나타난 Abuk!  
 우리의 일일 떼뎌뎌 선생님이 되어준다.  
 영어가 되지 않지마 동생은 아고셔도 특유의 타익한 설명력으로 수업이 진행했다.  
 Mana Mery 못지 않은 설명으로 떼뎌뎌를 가르쳐줘 아띠들의 감탄을 자아내  
 다.  
 덕분에 수업이 끝나면 아띠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놀기도 했다.  
 언저 Abuk ^^!!!!





# 아띠 수업 미술수업 진행하다 (주 진행 Beti)!!



3월 동안 아이들 대상으로, 테라 산타 집, 가족, 동물 등의 주제로 그림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고 보통 15~25명의 아이들이 참가하였다.

참여가 저조한 날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센터로 데려와고, 참여가 많은 날에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수업을 듣게 해야 했다.

Beti가 에피란 아이 옷에 그려진 헬로 키티를 따라 그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거의 50마리의 헬로키티를 그려야 했다. 이후 인어공주, 돼지, 언수이, 악어, 물고기 등 매일 그림 주제가 쏟아졌다.



# 물품관리 Lisa!와 그림 그리기 담당 Ivo!(주로 보조로 활동)



Lisa가 물품 관리를 도맡아 했는데, 이것이 첫지인 양 매일 "lapis(연필), lapis"를 외치며 본인이 언더로 관리를 잘 했다. 가끔은 학교에서 정말 얼마 하자 아는 만큼 이토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처사하다 생각도 들었지만 영 편이 넘어서는 아니었다. 사정을 알고 있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만 만큼 줄 수 는 없기에 매일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



주로 칠판에 IVO가 주제를 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저해시킬 것 같아 주제만 주고 스스로 생각해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거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이 생겨 일단 2가지 방법을 병행했다.



# 종이 접기 수업과 수업 파괴자!



한 번은 종이 접기 수업은 지해했는데,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모두 흥미로워 했으나 쉬운 종이 접기이에도 잘 따라오지 못해 돌아다니며 한 명씩 접어줘야 했다. 다음 번에 아이들이 스스로 접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종이 접기 방법을 찾거나 스스로 그림 지어 수업을 지해하며 좋을 듯하다.

수업 중에 고실에서 줄넘기를 하거나 수업에 참여 종이 아이를 방해하고 뛰어다니는 등 수업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아이들이 가끔 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거 주로 남자 아이들이고, 우리의 때때로 실력이 서툴러서인지, 단호하게 야다칠 적이 없어서인지 우리 말은 거의 듣지 않아 우디스 교사님이나 Mana mery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들 나르대로 우리의 과시를 받고 싶어 그러는 거 가운데 팀 회의 결과, 그바로 야다 칠 대신 보조교사가 이력 아이들에게 과시를 주고 함께 놀며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해보기로 했다.





# 아띠 YMCA 축구단을 만나다!(Dino)



YMCA 축구단과 함께  
매일 아침 7시,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YMCA 축구단 훈련!  
인도네시아 1부 리그 축구팀으로 지낸 질드 간사님이 코치로 있다.  
테라산타 애들은 아니지만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도 참가한다.  
3시에 가며 항상 세트 앞에서 제이머쳐 우리를 기다리고 이더 구역들이!!  
세트 앞에 운동장이 공사로 더 이상 쓸 수 없어 세트에서 조금 멀리 벗어나(거  
어서 20분 정도 소요됨) 바다 근처 호수가 있는 구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2시간씩 훈련을 하고 10 ~ 15명 정도 참여한다. Dino가 자주 참여하  
고 있는데 Dino의 말에 의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친서 경기나 시합이 있을 경우 아띠들이 꼭 구경 가기로 약속했다!





## 개인 피드백 (센터 활동)



센터 활동을 하면서 처음 본 아이들이지만 정말 스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거리가 없이 다가오 이름을 물어보거나도 이름을 알려주면서 몸놀리로 친해졌다. 비록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에 알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센터 갈 때 마다 아이들은 Maun Ivo 라고 말하면서 바겨주어서 정말 좋다. 점점 친해지면서 화실히 여기 아이들과 집에서 친구들과 가조끼리 어떤 문화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사나우게 때리고 서로 놀리고 도망가는 모습은 보며 처음에는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어찌 잘 몰라지만 점차 알면서 나도 익숙해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수업에 가끔 잡지 못하 채 때때로 배우더 중에 그림 수업에 진행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아이들과 언어 대신 말과 몸짓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익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돌아다니며 때번 Diak!(좋아!) 이라고 하며 좋아하고 뽀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사 온 친구들만 오는 거 너무 많이 왔을 경우 제약이 있는 센터에서의 환경적인 조건의 수업의 진행을 하든게 하는 친구가 있는 거, 14세 이상은 잘 안오지 않는 점 등 고민이 있다.

고민은 다시 되짚어보지만 그보다 크게 아따 클라쎄를 시작하라는 설렘을 가지게 된 3월이 된 거 같다.



처음에 이렇게 부족한 때때로 시력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놀 수 있나까 시어는데, 아이들이 새로 온 아따들의 특성(때때로 거의 못한다)을 잘 알고 있고 마음 통하지 않지만 함께 놀며 친해지고 나니 부족한 때때로 시력에도 수업에 잘 따라와졌다.

아이들이 내가 헬로키티, 인어공주 등 그림 그려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아이들 스스로 그리도록 하는 것이 고요적으로 더 좋지만 아나까 생각해지마 이따은 고요보다는 아이들과 조커운 시가을 보내다는 거 특히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가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조커어으며 조커다는 전에 초저음 마추고 시어 열심히 그림을 그려준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10대 초.중반의 여자 아이들이 여러 동생들 돌보고 있는데, 오저.오후 내내 마을에 있는 거 보며 하고에 가지 않는 듯하고 동생들 돌보야 해서 이지 센터에도 거의 오지 않는다. 이러 아이 중 하 명이 며칠 전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가 동생들 대신 봐주던니 정말로 오래,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가다. 이러 거 보며 우리 수업에 보면 과시과 흥미가 많은 거 가운데, 동생 때문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거 가아 아쓰러지마 다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어 다다하 따름이다. 때번 우리가 아지 돌도 안 된 아이들을 대신 봐줄 수도 어은 거 가고, 이주이에 하 두 버마이라도 동생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맡기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 개인 피드백 (세터 활동)



아르떼 클라씨에는 거의 마지막에 참여 해어다. 이전에는 YMCA 친구다 흥리에 참여해 계스해서 가이 옴을 해어다. 두 가지 활동이 같이 하다 보니 한 가지에 치우쳐 이더 적이 마아서 아쉬운 점도 이어지마 여러 가지 할 수 이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 아르떼 클라씨에서 가장 아쉬워 더 적은 아이들 통제가 많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통제해보려 했지만 시야도 안 멀려다. 결국 나뭇 회의를 통해 아이들과 밖으로 같이 나가 놀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겨로이 나다. 친구다 흥리에 참여해서 느끼 적은 저마 아이들이 뛰여 노는 거을 좋아하는 거이다. 아쉬운 적은 세터 안에 옴을 자은 쓰지 못해 겨어서 꽤 머리 이느 그 까지 가서 한 데 가는 기이 조금 위어하기도 하고 항상 마은 사라드이 이어서 흥리를 할 때 옴자은 크게 모스다는 점이다. 하 다 돌아 두 가지 를 병행하면서 할 수 이어다는 거에 감사하고 계스해서 아이들과 가이 이 뛰놀고 싶다. 체력이 버터주길 바라다.



아르떼 클라씨에서 나는 모포 관리를 마아는데, 그 더보에 그림을 제출하는 아이들과 한 명 모두 일대일로 대화할 수 이 어다. 자기 그림을 제출하면서 Jetu(머이다)를 들으며 수줍어하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물건을 던지고 친구에게 시비를 걸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며 실수라고 말하는 모습들도 귀여다. 지우개를 숨기고 종이를 찢어먹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 냥 아이들을 예뻐할 수 이어 더 거 그려 스스하 모습 보기 때뭇이 거이다.

또 아르떼에 오는 아이들을 보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은 매일 오는 아이들 보다 가끔씩 흥우리가 불러야마 오는 아이들 이다. 여기 와서 그림 그리는 거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우리가 부르지 안으며 오지 안는 아이들을 보며 사실 다음 달의 아띠 클라씨가 눈에 조금 그려지기도 한다. 수업이 시작해도 아이들이 오지 안는 경우가 마은 거이고, 그때마다 매일매 일 흥보를 하고 아이들을 불러와야 할 거 같다.

마지막으로 아르떼 클라씨 중 하 버 이어 더 조이 저기 수업은 내게 아띠 클라씨의 여신이 되어주어다. 나 때뭇이 생각나지 안으며 서스어이 하거를 배어고, 아이들 내가 마하 하거를 구호라도 되는 양 따라서 마해다. 그 모습 보 며 의미도 모르고 따라는 열중 하는 어그들이 귀여우면서도 이제 때뭇으로 머라고 말해야 하지, 매 스가이 마마해다. 하 다 돌아 아르떼에 들어가더 거은 우리에게 클라씨 여신이 되기에 참뭇해다. 이러 기회가 이어 더 거이 감사하다.



# 아띠 어린이들과 뭉 놀이를 즐긴다!!

아이들과 친해지는 첫 단계, 뭉놀이. 뭉놀이를 잘 하지 못하는 아띠들은 뭉 놀이로 아이들과 놀아야 했다. 주로 센터 앞의 시메트 운동장에서 줄넘기, 잡기 놀이를 했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 줄넘기.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로 하루 종일 줄넘기를 한다. Matel(죽어!)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그곳에서 들린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 줄넘기를

했다던 Beti는 그날 발가락에 엄지 손톱만한 물집이 나고야 말았다. Nopita가 뭉고 있는 것이 줄넘기 줄. 동그란 고무줄 여러 개 엮어서 만들어 놓았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다 →





# 잡기놀이와 공포의 Hadulas!



Kampo에서 어린 아이들과 주로하는 잡기놀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얼음땀과 비슷하다. pin kala pin이라는 노래로 스텝을 정하고 뛰어다닌다. 대부분 스텝은 아띠들이 맡아야 했다. 후덥지근한 오후 날씨에 두 시간 정도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한계를 느낀다.

Hadulas(spin)와 haksoi(jump)는 우리가 아이들과 자주 해줬던 mimn이다. 초반엔 해달라고 하면 다해줬지만, 점점 우리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hadulas를 피했다. 빈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가끔 해주는 hadulas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꽤나 많다.



Hadulas!를 연신 외쳐대는 떼쟁이 미다. 미다에게 붙잡히면 벗어날 수 없다.

Hadulas 중인 Beti와 즐기는 Teti



# 아띠 테라 샨타의 바다에 가다!!



자체 모자이크 사진!(><) (항상 얼빠진 아기들이 있다.)



수영하는 IVO



센터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어 떼뚱어 수업이 없는 오전에 몇 번 바다에 놀러 가다.

마을 사람들 외엔 거의 방문객이 없는 바다라서 그러지 주변에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고, 바다 자체가 그림 같이 예뻐 Beti와 Lisa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아음에도 바지를 건어 올리고 바다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정말 정말 예쁜 바다다!!

수영 좀 하는 IVO 말로는 금방 수심이 깊어진다 하고, 우디스 강사님도 바다에서 노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놀기에 어려울 거 같으나 우리끼리라도 자주 놀러 가고 싶다.

이러 바다를 코 앞에 더다는 거 정말 행복이다!!



# 아띠 Late(공동묘지)에 가다!!



테라사타의 전경이 하늘에 보이는 라떼. 떼뚝어 수업이 어더 일요일 오전 시간이 이용해서 다녀와다. 기을 모르는 아띠들을 위해 루시 띠나 리나가 동행해다. (마을에서 우리를 보 아시우도 함께했다.) 처음에 그냥 높은 동산이줄 아고 가게 다고 해더 곳이지만 동산의 높은 곳까지 이어지 비석들이 이곳 마을의 공동묘지임을 알려주어다.

라떼에서는 마을 모습이 하늘에 담기다. 아래 테라사타 위 테라사타가 이 단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또, 마로마 든더 바다가 얼마나 가까이 이리지도 이곳에서는 바로 알 수 있다. 비록 그림이 맑은 날 올라가기 해지만 아띠들은 다음 에도 또 오자고 할 만큼 라떼의 풍경에 반했다.



티모르 청소년들도 아는 점프 샷!



테라사타 절경과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띠나와 루시



# 아띠 Fhoe 돌잔치에 가다!!

우디스 간사님의 아들, 포에의 첫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다. 많은 음식이 있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축하 받은 모습이 한국의 돌잔치와 유사했다.



정말 머지 오과 귀여운 얼굴을 한 Fhoe



Fhoe와 아띠(여기서도 Mana Mery의 각다른 한결같다)





# Fhoe,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티모르의 아기 생일 잔치가 하기의 들 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축하를 받는 지는 몰라 미처 선물을 준비해가지 못했다. 그런데 보니까  
 동네 꼬맹이들도 모두 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와서 우리도 다음 날 급히 티모르 플라  
 자에 가 유아 모으포 세트르 구입해 선물했다.  
 세스 이게 하근에서 준비해가더라며 예쁜 옷이나 신발 등을 선물할 수 이어을  
 텐데, 아쉬웠다.

엄마를 닮아 예쁘게 잘 생긴 포에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나을 더 가려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잔치 내내 양저히 의적하게 이었다.

“포에,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 잠깐 쉬어가는 타임(1)!



잠깐 쉬어가는 타임 (2)!



점점 변해가는 그들(?)







새화 사진전  
으리 닌



떼뚝어 Study 실시!!

## ESTUDA TETUN

생활에 필수인 현지어 공부! 매일 오전 2시간씩 Mana Mery에게 수업을 받지만, 그거으로 부족한 거 같아 나눔 회의 때 매일 1시간씩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매을 게임에 적용하여 놀기도 하였다.



... 뭐 물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곤 했다 ... 하지만 떼뚝어 수업이 종료되 지금도 열심히 스터디를 매일 1시간씩 하고 있고, 확실히 한 달이 지난 지금 스터디의 효과를 톡톡 보고 있다.





# 리처드 아저씨 송별 파티!!



3월 22일 YMCA에서 활동하시던 리처드 아저씨가 이번 동티모르 일정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게 되었다. 티모르를 마지막으로 모든 업무가 끝나시고 티모르에서 마지막 밤에 조출한 파티를 열게 되었다. 조디 감사님과 Xefi Oras 내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념 선물인 이즈를 주셨다. 술을 한 잔 곁들이며 이리저러 얘기를 나누고 우리 아띠들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리처드 아저씨는 가족이 있는 하와이로 가시는데 티모르에는 조디 감사님이 결혼하면 오신다고 했다. 티모르에 종종 오셔서 좋은 인연으로 남아있으며 좋겠다. 우리와는 업무가 바빠서 많은 시간 같이 일지는 못했지만 함께한 짧은 시간 정이 좀 든 거 같다. 특히 Ivo와 함께 80kg+ 쯤씩을 잠깐 끄려다. 몸무게가 80+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ㅋㅋ

(회원 : 리처드 아저씨, Xefi Oras, Ivo)

# 아띠 생활 초보와 함께한 생활 피드백!!



기내하려 때 바음이 좋아더 서로의 화동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매주 주말에 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말 피드백은 가장 먼저 저절로 당황하지 않고 초보들 또한 여 더운 분위기를 살려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해더 보은 알 수 있고, 티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점 그리고 조어은 아끼지 않는 티어들이 이기에 정말 매우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이후 조금 아쉬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사소한 이야기로 변해다.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수에서 잘 진행되지 못해더 점 이어서 잘 이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주말 설거지 및 야식 당번을 정하는 보드게임을 실시

해진지!







처량한 IVO의 뒷모습 컬렉션



# 이달의 봉사상 리 잉 상

갑자기 찢어진 Lisa의 슬리퍼  
로 인해 거기 불편하자 Ivo가  
크하게 슬리퍼를 양보하고 집까지  
걸어가다!





# 아띠 Peace Coffee 방문하다!!



Timor-lete에 있는 공정 무역 커피 peace coffee 3월 한달 자의와 타의로 인해 매주 방문했다.  
 타의는 Ivo의 쇼핑을 도와준다는 Mana Mery!  
 하지만 그녀는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Ivo는 Peace Coffee에서 2시간 기다리고 쇼핑을 가려 했지만 그녀는 Ivo를 공장 집으로 데려다 줬다. 나중에 보니 그녀는 같이 쇼핑 가는 것이 아니라 쇼핑이 끝난 후 와서 Ivo가 기다려 집에 같이 오는 줄 알았다. Ivo는 쇼핑도 못하고 2시간 기다린 후 다시 집으로 와 그녀에게 바람 막아다며 슬슬히 맥주를 마셨다.  
 (결론 : 의사소통의 중요성!)



홍시 맛 나는 아보카도 주스와 설탕 맛 나는 아이스 티



주말마다 보는 Xefi Oras



# Peace Coffee 주변을 걷다!



Ivo의 허세



Beti의 허세



Dino의 허세



함께 어울려 노는 아름다운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뒷 부분에 ..... Dino와 Lisa의 거리감



# Lisa가 쏘다 쏘다 쏘다!!



3월의 회계인 Lisa의 철저한 회계 정리를 통한 외식 찬식!  
 조금씩 아껴 쓰면서 먹은 외식은 정말 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칼 같은 돈 계산에 외식은 별로 얻어더 하지만 더 기억에 남던 외식  
 (조금의 사비와 감사니들의 배려덕분에 더욱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

Obrigadu!(감사합니다!) Mana Clala, Maun Sam  
 왼쪽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식사  
 아래는 서양인들이 많이 오는 풍경이 정말 멋진 Cast away





# 아띠 국제시장을 가다!!

3번 미끄러울 타고 종점에 도착하면  
 발견할 수 있는 커다란 국제시장  
 Dino가 살 나시 티를 골라주는 Beti



안경 쓴 날  
 정면과 옆모습을  
 찍지 못하게 하는  
 Lisa



결국 Lisa가  
 허용한 각도  
 각도의 중요성  
 (후면 45도)



무더위 지는 날씨 타에 점점 노출이 심해지는 팔을 올리는  
 Dino와 바지를 올리는 Ivo  
 (여자 단원들의 불만 폭발)

## 개인 피드백 (숙소 활동)



드디어 시작되 디리에서의 숙소 생활! 역시 때부터 들어 더 생각과는 조금 달라다. 역시에서는 알아가는 단계에 의의를 두어  
고 디리를 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숙소가 되는 거이다. 다른 환경은 가지고 있고 전  
자기기와 기타 하그와 소통하기 힘든 여거이기 때문에 가진 생각이었고, 내가 누구한테나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  
는 거이다. 나름대로의 잘된 점도 있고 바서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생활이었던 거 같다. 가장 흔하  
리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위한 장비, 청소를 비롯한 각종 집안일, 때때로 스테디와 하를 마무리 하는 나중까지 팀원과 가  
이하고 규칙을 정하고 생활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숙소 생활이지만 팀 생활의 역할서이고 재미있게 생활하기를 원하  
고 심지어 때때로 스테디부터 설거지와 야식까지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또한 나름 제이 여자자로 팀의 리더는 정하지 않았지만 채이가 이 게 해도하려고도 노력했던 점도 있다. 너무  
잘했던 거만 나열하 거 같아서 부끄럽다. >< ㅎㅎㅎ

사실 내가 생활하면서 제일 바서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팀 규칙을 정해고 정해지 마크 못 지키 점도 바서하고 이  
다. 또한 3월 동안 소통자로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에 우리가 할 일들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진행해보고 싶은  
시도 이어지마 시가 여거사 주말에 계속 어디를 다니는 바람에 4월로 넘어 가는 것이 아쉬기도 했다.

지금 이거 저는 돌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며 숙소 생활이 가이 하는 기여가사니이나 차환가사니께 정말 큰 도움 바  
다. 도움 받은 일이 있으며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고 조언도 해주시고, 특히 생활, 음식, 문화 또 내가 잘 생각지 않고 있던  
티모르 Y와의 소통(3명의 소통자, 여자자 이기도 해서 그한 일이나 아프 일의 생길 경우 우디스 가사니과 연락체계)에 이  
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며 할수록 티모르 팀의 가장 큰 장점이 거 같고 숙소에서의 편안한 느낌은 정도를 짐작시켜 주  
는 거 같다.

하지만 사실 제이 큰 도움 팀원들이지 아 안까 싶다. 제일 부지러하고 생활 전반에 관심이 영향력 큰 펠치고, 우리가 디리  
팀 전력의 50%를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Beti, 내가 바닥에서 며 일 자면서 허리가 조금 안 좋았고, Beti도 아프 때 타  
지에서 아프며 외롭다며 아프지 말라고 약도 발라주고 죽도 만든 Dino, 막내지만 학교에서 보지도 않은 09학번인 나와 재  
미있게 놀고, 우연다한 남자들 뿐인데 강한 걸타려도 있는 Lisa, 이런 팀원들이 있어서 아직 나는 W3선의 시작에서  
하 달이 지나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 개인 피드백 (숙소 활동)

티모르 생활의 달인, 마나 클라라의 도움으로 이국 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생활의 작은 티부터 여러 유용한 정보와 도움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3월에 메이 요리사로 알고 있는 레시피를 초도언해 요리해 주고, 장보는 거든 채이져는데,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다 재료가 제한적이라 매일 비스비스하 요리해 해오는데 마이다며 며칠씩 팀원들에게 고마움 전한다.

3월은 일보다는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에 중점을 두었는데, 매주 금요일 밤 주말 설거지를 걸고 보드게임을 하는 게 무척 재미있었고(지극히 쪽 하고 이고), 자을 보든 가시을 사든 4명이 함께 움직여 더 시가들이 기어에 남는다.

우리는 매주 주말, 자기 자신과 팀원들의 생활. 화도 전박에 대한 피드백을 이야기하는데, 팀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저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바서도 할 수 있어 좋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일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와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팀원 전박이 매주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마 전 고열과 보통으로 며칠을 아파는데, 마나 클라라와 팀원 모두가 마음을 많이 써줘서 고맙다. 화요일은 무더운 날, 벼어 드 곳에 함께 가주고, 수시로 몸이 얼마나 나아져는데 체크하고, 도화이는 새가차와 짐 만들어준다. 보여이는 바새 자을 선택하며 필수거은 가아주고, 물과 약을 챙겨주고, 감사니은 야부터 벼어까지 모든 부분을 세심히 챙겨주셔서 모두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다. 이번에 화실히 느끼 거은 나도 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심히 그지 않고 마음을 써주고 싶다는 거인데,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써준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적자 어긋 보여 고마다는 마음 하지 못했는데, 고마워!)



## 개인 피드백 (소속 활동)



이것 딜리에 와서 지내 지 벌써 한 달이 지나다. 셋터 활동은 하면서 마음이 이어지마 역시 소속 활동은 하면서 또한 마음이 더더 거 같다. 여수에서 지내던 하 다과한 또 다른 느낌에 한 달이이다. 3월 하 다음 바서마 마이 한 하 달이 거 같다. 항상 무슨 일이 이거나 하며 시바적인 보통 내가 되어 더 거 같다. 장을 보러 가기로 한 날 늦게까지 찡글 해서 마 이 늦어지 적이 비벼해고 셋터 활동에 있어서도 팀 활동 보다는 개인으로 이고 저그 돌아다니 거 같다. 마음을 돌아다니고 나서 후 회한 게 있는데 가이 돌아다니면서 가이 고우해어으며 해다는 것이다. 3월 내내 말로만 미야하다. 아 그렇게 하고 바쁘 거 하나 어느 내가 아니다. 소속에서도 팀으로 활동한 적이 마이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색했다. 그러다 보니 거또는 느끼 으 마이 바라고 거기서 온 스트레스 풀지 못해 그러 내가 시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나이 더 마아다. 노력을 해다고 생각하지 마 돌이켜보며 전혀 하지 아아다. 혼자 떨어져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더 시간이 마아고,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적어다. 이러 나를 보면서 팀원들도 써 쥬지 마은 아아우 거 같다. 아직까지 표현이 서툴다. 그리고 나를 꺼내 보이는 것이 어렵 다. 하지만 이거이 고쳐야 할 것이을 아기에 그리고 팀원들이 저마 마이 도와주고 이기에 4월 하 달이 지나고 다시 피드백을 쓰고 이을 때는 바쁘어이어으며 쥬게다.



소속 생활은 하고 가사니드과 가이 하고 이기는 하지만 사시 가사니의 배려로 팀끼리 시간이 마이 보내 수 이어 쥬아 다. 우리끼리 놀이 삼아 한 때쯤 해매이나 그요이 오후에 한 보드게이 드 우리끼리 치해지 수 이은 시간이 마이 가지 기도 했다. 사실 우리 팀은 나눈 회의, 때때쯤스터디, 피드백 회의 등을 할 때 매우 길게 한 퍼이다. 가끔 우리끼리 회 의마하다가 세시간이 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피곤한 날에는 이러 팀 스케줄이 히드 때도 이어다. 셋터에서 이 한 시간이라 소속에서 한 회의의 시간이 비드비드하기도 해어오니 주개저도 쥬진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은 우리가 함께 수다스러운 회의를 이제까지 해와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잘 정리될 수 이어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활동이 히드거나 의미가 생기 때 이러 시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이어다. 또, 소속 생활의 서거지, 청소 등의 잘한 부분도 규칙을 만들어 기 때문에 그러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은 거도 매우 긍정적이다.



# 3억의 사진전



























A man in a black tank top and dark pants stands on the left, smiling and leaning against a wooden post.

A shirtless man in dark shorts sits on a wooden post, leaning against a large, round, flat stone.

A man in a blue t-shirt and grey shorts sits on a low concrete wall, looking towards the camera.

A man in a black tank top and blue jeans sits on a wooden bench, holding a purple cup.

A man in a blue t-shirt with a white logo and light-colored shorts stands in the background with his arms crossed.

A man in a blue polo shirt and grey pants sits on a blue chair on the right, smiling.















RaonAtti  
friends









## 개인 에세이 (Ivo)

라운아띠 처음 그리고 첫 지적의 나의 목표는 여지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팀들과 생활하며 마여히 마이 배우고 즐기고 오는 거이었다 하지만  
한 다음 티모르에서 지내면서 아니며 이 생활하면서 마여히 거이 구체적이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인 이사 마드근 인 여로 생활하는 거이  
다. 사실 처음 디리에 와서 사채를 하면서 보 무리 지어 모여인 청년들은 무서게 느껴지고 아이들은 "말라에"라며 으며 놀리는 거을 보고 주눅  
점이 이었다 하지만 테라 센터에서는 라운아띠가 화실히 2년은 너게 하 그에서마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으며 누구지 알고 이적 기수 사  
라들에 대해 얘기했다 으며 너무나 바겨주는 마음 주미들이 이었다. 그리고 젊니와 가이 몹으 쓰며 놀고, 그리 그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  
이 이었다. 그에 자여스려게 나도 으며 이야기하고 으며 지내는 하 다이 되어드 거 가다. 어마가 사지으 보시터니 하기에 이으 때 보다 여  
같이 더 좋아 보이다는 말에 사지으 처처히 부면서 화실히 내가 인상이 벼하고 으게 되느 그나를 느껴다. 심지어 우디스 가사니이 지어주시 이르  
인 Ivo도 나의 인 모습 보고 지어준 happy 라는 뜻이었다. 물론 아직은 내가 몹이 커서 아직은 가나아기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으면서 지내그 이  
고 서튼 때때문에 청년들과의 대화도 또 또 끄기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테라사타 마을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점이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이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3월 말바지에 조금씩 아프 티언이 새기기 시작해고 특히 다슬이가 너무 아프 바람에 이트 돌아 쉬게 되었다. 거가이 참 중요하다는 게으 다시  
하버 느껴고, 우리 모두 아프 사람이 어는 거이 가자 중요하다 거 가다. 그리고 하기가 가사니들과 생활하면서 하상 우리를 시켜 써주시고, 벼언이  
나 여려운 해주신 게으 비로하여 사소하게는 먹고 싶은 음식이 가이 하면서 가이 사다는 거에 대해 저거음과 가사함으 다시 하버 느껴다. 그리  
고 화실히 24시간으 외근에서 불어 지내다 보면서 마이 보며 친해지고 생활하는 거도 이고 하지만 그만큼 뽀겨거리는 적도 아다. 내 스스로 판단  
하기에 내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누구에게 칭찬이나 잘하 저 으면 비판하 점에 대하여 수줍어서 잘 얘기 못하고 조게 조게 조게 넘어가려는 거  
향이 이어서 가저표혀에 조근 서튼러더 점이 이더 거 가다. 나으 4월의 에세이에는 내가 배은 마여하지 않은 구체적이 하나가 위의 점이  
되어 으며 하다.



# 개인 에세이 (Beti)

## #1 Hanoin Korea ka?

한 달의 근내항려과 이터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킁짜 어이 누워만 보내다. 특별히 아프고도 어고 기분 나쁜 일이 이어더 거도 아니데, 아무 거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홀로 누워 잠과 독서만을 반복했다.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 하 다 돌아 전화 하 두 번 하 게 전부이(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외출 시 늘 어지지만 해도 꼬박 전화하고, 나가다 오며 어 기어이 이야기를 풀어내더) 딸의 그런 모습에 얼마나 적잖이 놀라 드해고, 이내 서운한 마음을 내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나는 야속하리만큼 단호 하게 한 달의 시가에 대한 마음 아껴고, 근내 어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티모르에 왔다.

다시 또 한 달이 지나고 그때의 마음을 설명하자면 사람들과 나 사이에 어찌 거리가,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는 심연이 생겨다고, 기어적다고, 설 령 어마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더 거 같다.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이 이 글을 알게 되다며 또 한 번 마음 아플지도 모 르지만 생각이 마아더 타이지 1월 하 다 돌아오 적마이지 가족들 떠올리 틈이 어어 그렇게 미지근하게 다시 만나고 또 다시 헤어질 수 있어더 거 같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단호하고 야속한 마음이나고 누군가 물어오다며 이제는 아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한 달은, 특히 몸이 아프 시가는 비로소 가족과의 이별을 실감하게 하다는 거 너무도 생생히 느껴다. 고향과 보통으로 병원에 가더 아침, 예드 감사님이 “Hanoin Korea ka?(한국이 생각나니)?” 특 하고 더지 말에 금방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마가 마이 보고 싶어는데, 지금 마이 아프다고 전화라도 하고 싶어는데, 그러 머러서 아무 거도 해주지 못해 밤마 도도 그르 얼마 모습이 뻘히 보여, ‘그때 하 번 더 아아보고 올 거’, ‘기 펴지라도 하 통 쓰고 올 거’, ‘보고 시을 거라고, 마이 생각나 거라고 말이라도 하고 올 거’, 홀로 생각하는 거로 마음 을 다래다. 생각해보니 가족 가에 무스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렘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줄 든든하 사람도인데, 그때 참 어리석어다고, 모나게 굴어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적마 지시을 다아 말할 수 있다.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고 이다고.



## #2 라오아띠는 테라산타에 무엇을 남기는가?

3월 한 달 동안 테라산타 YMCA 센터 미술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잘 고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피, 크레파스 등 모두가 흔치 않아 갖고 싶은 테데, 사용 후 늘 잘 버나하고 채상과 의자 정리라든가 뒤처리까지 잘 하고, 우리의 셔트 때문에 시력에도 지조하고 잘 따라와주는 모습 볼 때면 서배 아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눈에 보이는 듯해 새삼 그마음 느끼다. 아이들뿐 아니라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도 새로운 아띠들이냐며 오고 가는 길에 반갑게 인사해주시기 기쁘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 많은 것은 아띠들과의 접점이 매우 여러이므로 하그와 티모르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고, 티모르의 가난과 가정 경제의 여유롭지 않아 부끄럽게 여기고, 자녀가 티모르에서 자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검은 피부를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는 거 같다. 어쩌면 우리가 하그로 돌아갈 때, 돌을 쪼너겨 버하 자녀를 데리고 가다라면서, 그러며 아이가 해보하게 자라 거라고 말씀하셔서 뭐라 대다해야 할지 나가했다. 티모르가 하그보다 가난한 것은 분명하 사시이지만 티모르에 어느 해보이 하그에 이온 거라 보자온 어고, 사시 그리 생각하지도 않지만 묘지의 풍요와 해보이 무상 상상이냐고, 그러 허무매랑하 이야기 할 생각도 없다.

하그에서 온 4명의 하얀 대학생이 매일 오후네 사라드에게 으며 이사를 거네고, 하그롭게 아이들과 뛰놀고, 흔치 않은 색색의 문구를 써가며 수업하는 걸 봐왔으니 하그에 묘지의 풍요와 해보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것이 지도 모른다. 이시 전제과 취어 전제에 참패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묘수 끈는 사람들도 이다는 거, 양요에 대한 부다으로 초사 자체를 미르거나 포기하기도 하다는 거, 이든 아마 모를 것이다. 심지어 이그에서 하루하루 으며 보내는 아띠들이 하그에 돌아가 그 취어 전제에 뛰어들어야 하다는 거, 시가온 쪼개고 쪼개 전투력으 사스시켜야마 하다는 거, 그러에도 며 며마이 스자가 될 수 이다는 거, 이든 아마 모르고 이는 든하다.

그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남은 4개월 동안 팀웬드, Y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행동해야지.



# 개인 에세이 (Dino)

사실 하구에서 근내항부터 이고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에 도착할 때 가장 처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왜 가는 거냐,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란 면파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생각은 하며 할수록 후회가 계속 몰려왔고, 언뜻는 다음 나오지 않았다. 지금 현지에서의 시간이 1달이 지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거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다음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딜리에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얘기하는 거, 같이 놀러 가는 거, 그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 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이 하다 보니 이유 없이 즐거워지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진다. 단지 하다가 만나 사람들과 많이 잘 통하는 거도 아니지만 이리저리 이야기도 하고 약간의 자아 만나 같이 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에 내가 하구에서부터 가졌던 고민들에 다이 꼭 필요한 거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딜리에 와서 가사님과 현지어를 배우기도 전에 밖에 나가보 적이 이어서 딜리에에서의 첫 외출이었고 아닌 현지어도 어느 때였다. 큰 도로변을 지나고 작은 마을 지나 해변도로까지 거였다. 거으면서 그 자파 자파 지나치는 사람들이 거네진 인사만 작은 꼬마가 청년을 상대로 장난치는 모습, 그 청년이 이마를 탁 치고 머썩으 으으 으으 하며 내게 저 꼬마 좀 보라고 가리키는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거으로도 즐거웠다. 그냥 여기서 하루하루 하구와는 다르게 사는 게 즐거운데 고민할 필요가 이나 라는 생각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 같다. 나름 매주 커세트를 정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니 그거에서 온 즐거움이 마아다. 어쩌면 작은 마을이 돌아다녀보기, 어쩌면 작은 현지어 그밖에 지지하기, 어쩌면 아이들과 장난감 장난감 해보기, 사소한 거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들 하는 거지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워하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거 같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개인적이 많이 행동하다 보니 팀원들에게 가는 불편이  
마아더 하 다이다. 장을 보러 가기로 한 날에 축구하다 느끼게 오는 거  
티월드 전부 센터 안에 있는 데 혼자 이고 저고 들쭉시키고 다니 거 미술 수업  
하는 데 옆에서 아이들과 장난치는 거든 마음 불편을 주어 더 거 가다. 저만  
바서서 많이 하게 되 하 다이다. 바서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도 변하는  
모습은 팀에게 보여야 할 거 같다.

이제 여기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이고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그 재미에 즐겁게  
지내고 있다. 다으면서 시작하는 아띠클라썬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공유해가  
면서 그리고 다들여 가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 우리 팀 얘기를 하자  
며 우리 디리 팀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다. 어찌 나온 하루 나눈 하자고  
모여서 3시가 정도 스투다 떠다가 끝나더 저도 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팀의 모습이 좋은 거 같다. 여수에서부터 우리 팀에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  
한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즐거워 하는 거 가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 모든지  
개이보다는 팀으로 하는 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 얘  
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 부끄러움이 자식들에 얘기를 나누는 것이 부러울  
때가 많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하는 데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  
고 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싶다. 5개월 동안 좋은  
시드 지지고 보고 가이 잘 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  
리 팀이 멋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4월에는 청년들과 친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돼으며 하다. 그리고 아띠클라썬이 시작하며 또 다른 이디이 생  
기 거이고 그거에 대해 즐거움을 차아가면서 사는 그런 즐거움 4월이 돼으며  
한다.





## 개인 에세이 (Lisa)

국내 훈련부터 나는 라오아띠로서 먼가글 배우고 깨지는 게 좋아다 (사실 깨지다는 표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애초에 동티모르로 가는 목표도 이요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라도 내가 라오아띠를 하는 이유, 화도의 목표 같은 방향성을 잡고 싶어던 거 같다. 그러나 배운 거에만 너무 집착하며 혀시과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더라. 혀지에 도착하고 화도하면서 나는 이찌 지쳐고 부다가도 마이 가졌다. 국내 훈련을 하면서 화도에 대한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던 타이라고 생각하다. 마음 사라드온 마나 때, 아이들과 놀아줄 때 모든 화도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었다. 화도온 자하고 이는지, 사라드온과 잘 친해지고 이는지 호시 내 해도이 내가 배운 내용과 다르지는 아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 사라드온과 친해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져던 거 같다. 특히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질너기, 스퀘라자기 같은 화도이 나에게는 히드게 느껴지다는 거을 인정하면서 나는 왜 이리저, 하는 자책가도 들었다.

이러 생각드온 하고 이더 차에 티언드온 내게 개차다고 말해졌다. 천천히 하던 되다. 단순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마다 더부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만내라는 핏게로 대놓고 볼편을 하고 기운 빠지는 소리를 듣는 더저도 티언드온 귀차은 내새 어이 토타여졌다. 더부네 내 아에 이더 붙아, 실마드온 조금씩 사라질 수 이었다. 거기다 우리 티언드온 할 때 손바이 잘 마는 편이라 내가 주춤하며 여에서 부츠한 거 채워주는 사람이 늘 이었다. 더부네 조금하지 않은 수 이었다. 이제는 세터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무료 아띠클라쎬를 시작하며 다시 시해차드온 거치게 되고 또 고미하게 되게지만, 보아가온 여다. 내 속도 대로 천천히 어서프더라도 꾸준히 해나가고 싶다. 내게 이어 이버 하 다운 혀지의 친구에게서 감동은 받기보다 곁에 이신 티언드온에게 감사할 수 이던 시가이었다.





## 2. Bondiya!

미끄러이 타고 테라사타에 도착하며 센터로 가는 길까지 사람들을 꽤 여러 만나다. 센터에 자주 와서 이름을 아는 어린 아이들과 늘 같은 자리 같은 그늘에 앉아  
인 친 녀들, 그리고 우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눈을 맞추는 사람들도까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어색했다. 며 분 안 되  
는 정말 짧은 거리인데도 센터까지 가면서 열 번쯤 본디야, 보따르디 이사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데 한 다쭈 지나 지금 조금이나마 인사를 하는 표미를 알 거 같다. 강하 해변 때문에 인사를 찌푸리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본디야, 하마디를 거네며 생각보  
다 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대대이 돌아온다. 덕분에 스과쳐러 인사를 먼저 거네더 나도 지시 어리 옴이 나온다. 센터로 가는 길 돌아오는 길에는 늘 이러 사소하지  
만 기쁜 줄은 마나드 이이다.



Ate Fulan Oin ! (다음 달에 만나요!)

